

# 고우석, 김하성과 한솥밥 ... SD와 2년 계약

한국프로야구 LG트윈스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26)이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 협상 마감일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MLB) 입성의 꿈을 이뤘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른손 불펜 투수 고우석과 상호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고우석은 2023년 KBO리그 LG 트윈스에서 44경기에 구원 등판해 9이닝당 탈삼진 12.1개, 평균자책점 3.68의 성적을 올렸으며 특히 좌타자를 상대로 피안타율 0.179, 우타자를 상대로는 0.286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고우석은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결정지은 마지막 투수였다"며 "올해 초엔 샌디에이고 내야수 김하성과 2023 월드베이스볼



▲ 고우석, 사진=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래식(WBC)에 출전했지만 (부상으로) 등판하지는 못했다"고 알렸다. 다만 계약 총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뉴욕포스트의 조엘 셔먼 기사는 "고우석이 샌디에이고와 계약기간 2년, 총액 45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이 주전 내야수로 활약하고 있는 구단으로 고우석을 영입해 한국인 선수 2명을 보유하게 됐다.

고우석은 류현진(한화 이글스→다저스), 강정호(넥센 히어로즈→피츠버그 파이리츠), 박병호(넥센

→미네소타 트윈스), 김광현(SK 와이번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하성(키움→샌디에이고), 이정후(키움→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포스팅을 거쳐 KBO리그에서 빅리그로 직행한 7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 중계 도중 여성 가슴 노출한 방송국 사과

방송 중계 도중 여성 가슴을 노출한 스포츠 전문 방송국 ESPN이 뒤늦게 방송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ESPN은 전날 풋볼 경기 중계 도중 일어난 방송 사고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사고는 1일, 워싱턴 허스크스와 텍사스 롱혼스의 슈가볼 경기 중계 도중 경기 개최 장소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의 관광 명소인 버번 스트리트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일어났다.

화면 오른쪽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건물 위를 올라다 보며 누군가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는데, 이 중 한 여성이 상의를 내려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는 장면이 그



▲ 한 여성이 상의에 손을 올리고 있다(원내, 사진=X(CorkGaines))

대로 방송 화면에 나가고 말았다.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할 시간도 없었고 이 장면은 미국 전역에 방송됐다.

ESPN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뿐이었다. ESPN 홍보 관계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영상이 방송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이날 뉴올리언즈의 메르세데스-벤츠 슈퍼돔에서 열린 슈가볼에서는 워싱턴대학이 텍사스대학을 37-31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워싱턴대학은 8일(월) 오후 4시 30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미시건대학과 맞붙는다.

# 관중에게 음료수 끼얹은 NFL 구단주 벌금 30만 달러



▲ 테퍼 구단주가 음료수 컵원 내을 들고 있다. 사진=X(95KeepPounding)

관중에게 음료수를 끼얹은 미국프로풋볼(NFL) 구단주가 벌금을 물었다.

3일 'MK스포츠'에 따르면 ESPN은 전날 데이빗 테퍼 캐롤라이나 팬터스 구단주가 3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됐다고 전했다.

테퍼 구단주는 1일 열린 잭슨빌 재규어스와 원정경기를 스위트룸에서 지켜보던 도중 상대 팀 잭슨빌 팬과 시비가 붙었다. 경기가 열린 에버뱅크 스타디움은 스위트룸이 관중석과 맞닿아 있었고, 바로 앞 관중석에서 한 관중이 스위트룸에 있던 그에게 도발을 한 것.

이에 테퍼는 들고 있던 컵에 남아 있는 음료수를 그 관중에게 끼얹었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하루 뒤 NFL 사무국은 성명을 통해 "모든 NFL 종사자들은 팬들을 존중해야하며 자신의 팀과 NFL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한다"며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테퍼는 성명을 통해 "내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그때 경기장 시큐리티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했어야했다. 나는 NFL 행동 규칙을 존중하며 내 행동으로 인해 나온 징계를 받아들일 것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는 캐롤라이나가 0-26으로 참패했다.

#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